

## 해부학과 명화의 접목을 중심으로 한 한의과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사례 분석

김선경<sup>1</sup>, 김남균<sup>2</sup>, 김태하<sup>3</sup>, 김예은<sup>3</sup>, 김범희<sup>4</sup>

<sup>1</sup>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sup>2</sup>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sup>3</sup>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sup>4</sup>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Analysis of the Operation Case of an Korean Medicine Colleges Extracurricular Program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Anatomy and Famous Paintings

Seon Kyoung KIM<sup>1</sup>, Nam Kyun Kim<sup>2</sup>, Tae Ha Kim<sup>3</sup>, Ye Eun Kim<sup>3</sup>, Bum Hoi Kim<sup>4</sup>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3</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 Anatomy not only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as basic medicine, but also carries a big message in the medical humanities.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 empathy and compassion are required as essential educational elements for students who will becom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 subject that can develop competency. However, in the field of medicine, university education is subdivided and systematized by major due to responsibility as an expert dealing with life and preparation for national qualification exams, so the amount of learning is greater than in other departments, and the competitive structure is entrenched in most cases due to the operation of a practical paid system. Therefore, the curriculum has some limitations in sufficiently exposing students to emotional learning experiences as a medical humanities approach through classes. In this approach, a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 Busan felt the need to develop and operate a non-curricular program to develop students' core competencies. We planned an extracurricular program through famous paintings as an extension of the anatomy curriculum by reflecting students' subject interests and required topics, and analyzed the operation results to lay the foundation for regular extracurricular program operation in the future.

**Keywords** : Extracurricular programs, Anatomy, Medical humanities, Famous paintings, Medical education

이 논문은 202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02301250001)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December 4, 2023; **Revised:** January 11, 2024;

**Accepted:** January 17, 2024

**Correspondence to:** 김범희 (동의한의대 해부학교실)

**E-mail:** bume@deu.ac.kr

## 서론

해부학은 기초의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문학적으로도 큰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성, 공감-연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1-3]. 특히 해부실습은 인간의 몸에 대한 지식을 습득과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인간 존엄의 깊은 인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므로써 정서적 학습경험까지 포함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는 윤리성 및 공동체 의식 체화로 의료인의 정체성을 배운다. 이러한 관점에서 르네상스 이래 서양에서는 실습이 해부학 교육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4-9].

그러나 의학계열에서 대학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국가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전공별로 세분화·체계화되어 타 학과보다 학습량이 많고, 대부분 실질적 유급제도 운영에 의해 경쟁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10-12]. 따라서 교과과정은 수업을 통해 의료인문학적 접근으로서의 정서적 학습경험에 학생들을 충분히 노출시켜주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 졸업 후 학생들은 긴 시간 프로페셔널리즘을 갖춘 한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 보호자, 동료의료인, 지역사회, 의료보전 전문가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 자신의 의미를 파악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13]. 현재의 교과과정이 향후 ‘한의사-환자, 보호자, 동료의료인’(으)로서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이 사회의 한 ‘건강증진 전문가’로 성장하는 준비를 예과, 본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체화시켜 줄 수 있어야 하지만, 교육환경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체계적인 비교과 활동을 통해 교과 활동을 보완해야 하겠다.

## 연구 방법

### 1. 한의학교육에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한의학교육의 현황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합교과목 개발, 기초-임상 강의시간 조정, 조기 임상실습 도입, 의료인문학 강화 등 교육과정 변화를 교육개혁의 우선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PBL, TBL, FL, 성찰일지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 협력, 사회적 책무성 등 직업전문성의 향상을 위한 서사적 기술, 역할 모델 등 성찰 기법을 수업에 적용시키고 있다[14-16]. 이렇게 기존 교수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응용력, 융합 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17,18], 1998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정하여 정의하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안녕 상태의 건강증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미래 의료 전문가가 될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얼마나 숙고하고 있는지는

성찰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영적 안녕은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으로,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19]. 이렇게 한의학교육에 있어 비교과 프로그램은 영적 안녕의 교육, 의료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식의 심화교육에 필요하겠다.

### 2. 해부학을 명화로 접근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해부학자인 베살리우스(Vesalius),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윌리엄 헌터(William Hunter), 헨리 그레이(Henry Gray)까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대생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Frank Netter의 Atlas of Human Anatomy는 의학서적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명화집에 가깝다. 수 세기에 걸쳐 이들과 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주요 인물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능숙하게 설명해 왔다. 이는 역사적인 해부학자들이 그래왔듯이, 의학자들이 해부학을 통해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묘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Netter는 Atlas of Human Anatomy의 서두에서 “물론 해부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부학과 그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해부학 용어 및 명명법과 마찬가지로 변합니다.”라고 하였다[20]. 이처럼 해부학에서 인체와 그 임상적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명화를 볼 때 어떤 캔버스를 사용했는지 어떤 물감을 사용하였는지를 아는 것보다 명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과 비슷하겠다.

지식에 대한 탐구와 관찰 기술은 환자들을 보고 치료하는 한의사가 될 학생들에게 역시 필요한 주요 특성이다. 현대의 사진은 해부학 및 임상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는 그것이 보는 내용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Netter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눈과 손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함께 그림을 창조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였다[21].

이러한 맥락에서,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를 주제로 한 이른바 ‘명작’들의 소개와 감상은 해부학 지식에 대한 흥미 및 학습동기 유발의 효과뿐 아니라, 예술감상이라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한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적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해부학에서 명화를 명화에서 해부학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판도라, 판데믹, pan-

Distribution of COVID-19 cases as of 21 March 2020, 23:39 (CET)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판도라>, 1896년, 152×96cm, 개인소장

### Gustav Klimt's *The Kiss*—Art and the Biology of Early Human Development

Die Hyun Kim, MD, PhD; Hyewon Park, MBSCh, PhD; Med SG, In-Joo Rhyu, MD, PhD

**T**he Kiss (1907-1908) is the best-known painting of Gustav Klimt (1862-1918), an Austrian painter of the European Art Nouveau, and was first exhibited in 1908 at the Vienna art show Raum 22 with the title *Leibepaar (The Lovers)*.<sup>1</sup> Depicting 2 lovers embracing against an abstract expanse of gold leaf on a painted bed of flowers, the painting hangs in Vienna's Österreichische Galerie Belvedere museum.<sup>2</sup> Admirers of Klimt's painting have noted similarities between forms in the lover's garments and those of human gametes. Southgate wrote that "stylized sperm and ova" define the 2 figures, constituting a "richly embroidered tapestry of fecundity and joy."<sup>3</sup> Neuroscientist and Nobel Laureate Eric Kandel and art historian Susanna Partsch have also read sexual forms into the patterns on the lover's garments, contrasting spermatid elements on the man's cloak with ovoid counterparts on the woman's dress.<sup>4,5</sup>

These observations suggest Klimt might have been familiar with human biological structures. Indeed, Klimt was part of the Viennese Modernist community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which emphasized cross-fertilization between the arts and sciences.<sup>6</sup> Artists, writers, physicians, scientists, and journalists moved in small, tight-knit, interconnected circles<sup>7</sup> in private salons and in-home gatherings, which provided a fertile ground for interdisciplinary com-

Kim DH, Park H, Rhyu J. Gustav Klimt's *The Kiss*—Art and the Biology of Early Human Development. *JAMA*. 2021 Nov 9;326(18):1778–1780.

### 승모근(등세모근)

프란체스코 데 수르바란, <성 프란체스코>, 1660년, 캔버스에 유채, 65×53cm, 뮌헨 알테피나코테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든 인형에 숨을 불어넣었다 <창세기>의 구절

프란체스코 데 수르바란, <성 프란체스코>, 1660년, 캔버스에 유채, 65×53cm, 뮌헨 알테피나코테크

마리아 반 오스트레익, <바니타스 정물화>, 1668년, 캔버스에 유채, 73×88.5cm, 빈미술사박물관

빌렌 반 스바넨부르크, <레이덴의 해부학 극장>, 1610년, 레이크스미술관

Fig. 1. Contents of class.

### 3. 해부학-명화를 접목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식

부산의 한 한의과대학에서 예과 1학년(M1)부터 본과 4학년(M6) 25명을 대상으로 해부학에 관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개발은 사전에 M1~M6 학생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를 조사한 결과, 교과과정의 심화학습/예술/자기개발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부학교실과 의학교육학교실에서 이러한 성격의 교집합을 가진 '예술로 접근해보는 해부학' 성격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가진 의료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이 학생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고, 미술-해부학을 주제로 하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한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학생회 및 교내 포스터 게시

2023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인체 신비의 탐구를 통한 르네상스 미술 여행**

프로그램 일정

<b>일시</b> 11/08(수) 18:00-19:00	<b>강의 장소</b> 한의학관 214호
<b>대상</b> 예1-본4(20명)	<b>강사</b> OO의대 OOO 교수

※ 세부사항  
모집 기간 11/07(화)까지 선착순 등록  
신청 방법 pietas@deu.ac.kr (이민, 학민, 성원, 연락처, 수료증 수령 메일 기입)

**수료증**

성명 :  
소속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과정명 : 인체 신비의 탐구를 통한 르네상스 미술 여행

위 학생은 한의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학 전문가로서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08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인

Fig. 2. Promotional materials and certificates.

로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신청은 2023학년도 1학기에 선착순으로 받았으며, 운영은 2학기에 ‘인체 신비의 탐구를 통한 르네상스 미술여행’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에 걸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학습자료를 배포하여 예습할 수 있도록 했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명찰을 배부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google form을 활용하여 만족도 조사를 하였고 참여 학생들에게 그 결과는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았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의학교육학교실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자기개발 역량 함양’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 결 과

교육만족도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요구도는 다음과 같다.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의 질문은 단답형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① 학년, ② 만족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 ③ 기대역량 성취달성도[매우 달성되었다/달성되었다/보통이다/달성되지 못했다/전혀 달성되지 못했다], ④ 프로그램에서

‘불만족/기대한 목표에 비해 미비’에 대한 이유, 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만족한 점’에 대한 이유, ⑥ 개선되어야 할 점, ⑦ 향후 더 공부하고 싶은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를 질문했다. 응답 결과 및 분석은 다음과 같다. ① M1: 16.7%, M2: 33.3%, M3: 16.7%, M4: 25%, M6: 8.3%, ② ‘매우그렇다’ 75%, ‘그렇다’ 25%, ③ 기대한 ‘목표달성’ 이상이 91.7%, ‘보통’ 8.3%, ④ 강의시간/횟수 연장 요청, 강의시간 부족, ⑤ M1: 적절한 시간 배분과 어렵게 느껴진 해부학 용어를 명화로 설명함에서 오는 친밀감 등, M2: 교과과정 내용과의 연계성, 교양적 소양 함양, 수업시간에서 배운 지식을 명화에 접목해 보는 것에서의 흥미, 향후 학업 동기 상승 등, M3: 미술작품 속 해부 구조를 통한 복습의 유익함, 교과과정에서 배운 해부학을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에서 오는 흥미로움 등, M4: 예술작품을 통한 해부학 접근의 신선함, 재미있는 명화 설명 등, M6: 르네상스 시대 예술에 대한 이해, 라틴어 어원에 대한 미술을 통한 복습 등, ⑥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강의 파일 배부 요청, 심화 과정 개설 요청, 예과생과 본과생을 나누어 수준별 강의 요청, ⑦ M1: 진로탐색, AI, M2: 인간관계, 독서토론, 음악, M3: 근골격 재활의 임상 케이스 분석, 임상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과 접근방법 등, M4: 인문학, 예술사, 환경보호, M6: 한의 경영학, 취·창업의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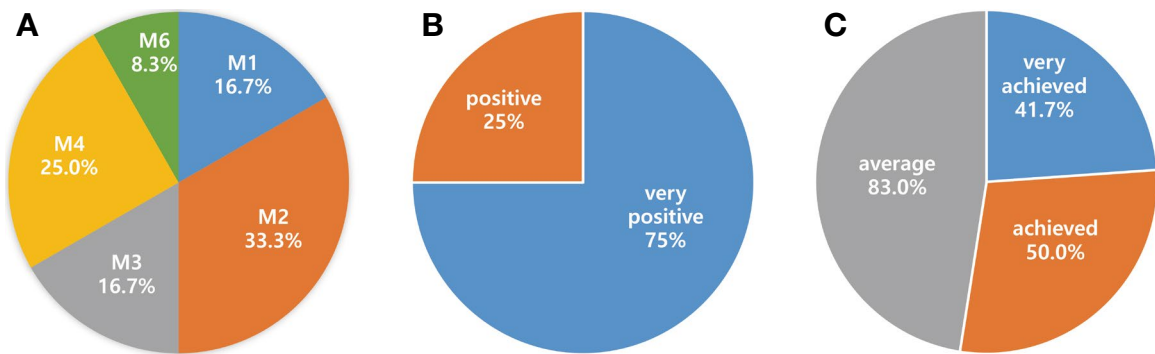


Fig. 3. Response outcomes from students (A: M1 to M6 represents the academic year of medical school; B: Satisfaction; C: Achievement rate).

이러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학생은 M2, M4, M1/M3, M6 순서로 많았다(M3는 당일 교과과정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참여 불가능). 예과에서는 M2가 본과에서는 M4가 가장 많이 신청하였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만족도와 및 향후 관심 주제를 분석하였을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기초의학 학업량이 많아지고 실습을 포함한 해부학 과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는 M2는 본과 진입 전 자신이 준비해야 할 학업적 역량을 확인하고 더 키우고자 하였다. M4는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전 학년으로서 향후 실제적으로 개원의나 봉직의로서 환자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의사에게 필요한 역량 준비에 흥미를 보인다고 여겨졌다. M3는 임상 의학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와 준비가 해부학을 바탕으로 임상케이스에 집중된 비교과 주제로 자신의 관심사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고 찰

이번 해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피드백 설문 결과는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서양의학에서 비롯된 해부학을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서양 명화들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었다. 기대역량 성취달성도 및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첫째, 교과과정에서 성취한 학습요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재로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의 역량 성취에 대한 객관적 기대 수치가 있었고, 둘째, 교과과정에서 배운 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교과 외 교육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주제를 통해 졸업성과, 즉 자신의 핵심역량을 기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별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M1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의학의 발전 방향성에 관심을, M2는 전 연도에 비해 늘어난 학업량과 동아리 활동 등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짐으로 인한 인간관계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흥미를, M3는 임상의학에 관하여 학습하고 있는 것이 임상현장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관한 호기심을, M4는 의학과 인문학의 경계에 있는 의료인문학이나 예술을 통한 한의학 및 한의과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필요성을, M6는 한의원 경영과 공동체에서의 한의사 역할 등 실제 진료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Phase 1 (M1, M2)의 학생들은 자기이해를, Phase 2 (M3, M4)에서는 타인이해를, Phase 3 (M5, M6)에서는 공동체 이해에 관한 교육 요구[22]가 학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부학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 영적 안녕을 함양함과 동시에 해부학적 지식도 더 심도 있게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학생들의 졸업역량 함양을 위해 교과과정 외 보완할 점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계획한다면 Phase에 따른 주제 선정 시 위의 3단계를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이는 핵심역량의 시기평가 시 정성평가의 일종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피드백에 활용 가능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 구축 및 평가방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 REFERENCES

1. Lee HS, Lee JH, Park KR. The Value of Anatomy in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for Future Talents. *Anat Biol Anthropol.* 2022;35:67-73.

2. Ha YJ, Kim KH, Kim DW, Lee KG, Im SJ. A Study on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Blended Anatomy Cadaver Dissection Practice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MBTI) of Medical Students. *TheIJHSS*. 2023;14:1509-24.
3. Older J. Anatomy: a must for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The Surgeon*. 2004;2:79-90.
4. Kim JK, Kim YJ, Burm EN.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and Attitudes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JMAHS*. 2016;6:111-22.
5. Dinsmore CE, Daugherty S, Zeitz HJ. Student responses to the gross anatomy laboratory in a medical curriculum. *Clin Anat*. 2001;14:231-6.
6. Coulehan JL, Williams PC, Landis D, Naser C. The first patient: Reflections and stories about the anatomy cadaver. *Teach Learn Med*. 1995;7:61-6.
7. Lee YP, Yang KW, Jin SC, Choi WI, Lee JH. The Effect and Applicability of Anatographic for Anatomy Education. *Korean J Phys Anthropol*. 2018;31:51-6.
8. Hong HJ, Yoon SP.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and curricular changes on anatomy based on basic medical education examination. *Korean J Phys Anthropol*. 2016;29:105-12.
9. Choi GY, Kim JM, Seo JH, Sohn HJ.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 - 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Korean J Phys Anthropol*. 2009;22:213-24.
10. Ha KJ, Moon SY, Park SH, Park JH, Jeong YJ, Heo SY, et al. Influencing Factors of Club Activity, Relational Self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KNS*. 2020;24:22-37.
11. Bae SH, Park J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xtracurricular Coaching Program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202-14.
12. Kim HW, Kang SY. Case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for enhancing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JLCCI*. 2018;18:337-57.
13. Bang HJ, Yun JY, Kim AY, Cho HJ, Cho SJ, Kim HJ.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relational self and development of the relational self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 J Psychol: Gen*. 2007;13:23-63.
14. Kim YH, Hong C, Oh SO, Yoon S, Kim MJ, Ju S, et al. The Impact of Alternating Dissection in Conjunction with Reciprocal Peer Teaching on Practical Exam Scores in a Medical Anatomy Course. *Korean J Phys Anthropol*. 2018;31:83-9.
15. Kam BS, Kim MJ, Joo SI, Yune SJ, Im SJ, Lee SY, et al. Relationship of Peer- and Self Assessments in the Anatomy Laborator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Gross Anatomy. *Korean J Phys Anthropol*. 2018;31:1-7.
16. Bernabeo EC, Holmboe ES, Ross K, Chesluk B, Ginsburg S. The utility of vignettes to stimulate reflection on professionalism: Theory and practice. *Adv Health Sci Educ Theory Pract*. 2013;18:463-84.
17. Lee EM, Jang MK, Kim MY.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and Cornell Note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Teamwork of Underachieving Nursing Students in Human Anatomy Course. *JKCS*. 2020;11:351-60.
18. Yang BS. A Study on the Adapt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to Problem Based Learning. *JKAN*. 2006;36:25-36.
19. Lee MR. A Study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s to Death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JMAHS*. 2015;5:287-95.
20. Netter FM, Friedlaender GE, Frank H, Netter MD and a brief history of medical illustration. *Clin Orthop Relat Res*. 2014;472:812-9.
21. Hansen JT, Frank H, Netter, M.D. (1906-1991): the artist and his legacy. *Clin Anat*. 2006;19:481-6.
22. Kim SK, Kim J, Lee JH, Bae J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medical humanities education at domestic medical schools and proposal of educational system. *Korean J Health Commun*. 2021;16:215-24.

**간추림** : 해부학은 기초의학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문학적으로도 큰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성, 공감-연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의학계열에서 대학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국가자격시험 준비로 인해 전공별로 세분화·체계화되어 타 학과보다 학습량이 많고, 대부분 실질적 유급제도 운영에 의해 경쟁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수업을 통해 의료인문학적 접근으로서의 정서적 학습경험에 학생들을 충분히 노출시켜주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접근에서 부산의 한 한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내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들의 과목 관심사 및 요구주제를 반영하여 해부학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명화를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기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찾아보기 낱말** : 비교과 프로그램, 해부학, 의료인문학, 명화, 의학교육학